
출장결과보고

East Asian Seminar on Economics 2025 참석

2025. 3. 25. ~ 29.



한국개발연구원
Korea Development Institute

1 출장 개요

- 기 간: 2025년 3월 25일(화) ~ 29일(토) [3박 5일, 출·입국일 포함]
- 출장지: 호주 시드니
- 방문 기관: Reserve Bank of Australia
- 주요 활동: 동아시아 경제학 세미나 참석
최신 경제 연구 동향 파악 및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킹 강화
- 예 산: 학술 및 정보교류
- 출장자: 정성훈 선임연구위원

2 출장 일정

일자	시간	주요 활동 내용	비고
3/25(화) ~ 3/26(수)	18:45~06:55 ⁺¹	[출국] 인천 → 시드니 (KE401)	KE401
	~	호텔 이동 및 체크인	
	12:00~14:00	간담회(1)	
	18:00~20:00	Welcome Dinner at H.C. Coombs Conference Centre	
3/27(목)	09:00~09:40	세미나 등록 및 개회식 참석	
	09:40~17:50	세미나 세션 참여 (세부 일정 홈페이지 참조)	
	12:00~14:00	간담회(2)	
	18:00~18:45	간담회(3)	
3/28(금)	09:00~17:30	세미나 세션 참여 (세부 일정 홈페이지 참조)	출장자 발표
	12:00~14:00	간담회(4)	
	18:00~20:00	간담회(5)	
3/29(토)	9:40~17:50	[귀국] 시드니 → 인천 (KE402)	

3 컨퍼런스 주요 내용

- 주제: What Determined the Evolution of Globalization 1995-2017 ?
- 발표: Edwin L.-C. Lai (HKUST)
- 토론: Jarkko Jaaskela (Reserve Bank of Australia)

□ 연구 저자는 1995년부터 2017년까지 세계화가 어떻게 심화되었는지를 분석하였음.

- 세계화 진전을 단순한 무역 확대가 아닌, 무역비용과 기술수준 변화에 따른 무역이익(Gains from Trade, GFT)의 변화로 측정
- 이를 위해 저자는 Eaton-Kortum 무형을 일반균형(General Equilibrium)으로 확장하고, 중간재와 최종재를 구분하여 분석
- 기술 및 무역비용 변화가 GFT에 미치는 효과를 정밀하게 추정

□ 주요 결과는 세계화 심화의 주된 요인이 무역비용 감소임을 밝힘.

- 무역비용 감소는 GFT 변화의 117%를 설명하며, 기술발전은 오히려 상대가격 왜곡으로 일부 GFT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보임.
- 세계화 심화에는 특히 개발도상국의 기여가 컸음. 중국, 러시아, 인도, 폴란드, 한국 등이 주요 역할을 하였으며, 이 중 중국은 세계 무역이익 증가의 약 31%를 차지하는 핵심국으로 나타남.
- 중간재 무역비용 감소가 최종재보다 GFT에 미치는 영향이 2~3배 크며, 이는 생산 공정 전반에 비용 절감이 누적되어 발생하는 멀티플라이어 효과 때문이라는 결론

□ 결론적으로 저자는 무역비용 감소와 개발도상국의 기술 발전이 세계화 심화의 핵심 동인이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음.

- 주제: Long-term Projections of the World Economy
- 발표: Weifeng Larry Liu (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)
- 토론: Alan Woodland (University of New South Wales)

□ 연구 저자는 2050년까지의 세계 경제의 장기 성장 경로를 분석하고 예측함.

- 기존 연구들은 세계 GDP per capita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둔화될 것으로 보며, 그 원인으로 인구 고령화, 기술 진보 둔화, 투자 감소, 교육 성취 정체 등을 지목함.
- 그러나 지역별 성장 전망은 상당히 상이하며, 특히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큰 것으로 나타남.

□ 기존 연구와 달리 저자는 G-Cubed라는 동태적 일반균형(DGE) 모형을 활용하여 18개 국가 및 지역, 6개 산업으로 세분화된 구조를 적용

- 연구 결과, 선진국은 인구 고령화로 인한 노동공급 축소와 생산성 둔화가 예상
- 다만, 인공지능(AI)의 발전이 이러한 부정적 효과를 일부 상쇄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
- 반면, 개발도상국은 인구구조상 여전히 상대적인 젊은 인구와 생산성 격차 해소를 통해 성장 여력이 존재하지만, 이는 기술 채택 속도와 제도적 요인에 크게 좌우됨.

□ 또한, 생산성 수렴(Convergence) 과정이 국가 간 성장률 격차를 설명하는 핵심 메커니즘으로 작용함.

- 특히, 제조업과 서비스업 부문에서 후발국들이 선진국 대비 빠르게 생산성을 개선할 가능성이 존재하지만, 자원 의존적 부문(에너지, 광업, 농업)에서는 지리적, 환경적 제약으로 인해 수렴 속도가 제한적임을 보임.
- 저자는 기후변화, 인구구조 변화, AI 발전, 글로벌 거버넌스가 향후 세계경제의 장기 성장경로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라고 주장

- 주제: Who Reshores?
- 발표: Sunghoon Chung (Korea Development Institute)
- 토론: Prasanna Gai (University of Auckland)

- 연구 저자는 기존의 단순 이분법(offshoring vs. reshoring)을 넘어, 한국 제조업 다국적기업 1,200개의 2008~2019년 투자 데이터를 바탕으로, 기업을 확장형·해외이전형·국내복귀형·유보형으로 구분하는 통합적 분석틀을 제시
 - 기업의 투자 전략은 내부 역량(생산성, 규모, 해외 경험 등)과 외부 환경(노동비용, 제도 등)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남.
- 국내복귀형(Reshorer)은 규모가 작고 생산성이 낮으며, 노동집약적 구조와 가까운 해외 거점을 기반으로 복귀하는 경향이 있음.
 - 이들이 국내로 복귀한 이후 단기적으로 고용과 매출은 증가하지만, 중장기적으로 생산성 향상은 다른 투자 유형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남.
 - 아울러 이들은 다른 투자 유형에 비해 애초부터 해외에서의 생산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,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낮은 편이었음.
 - 반면, 해외이전형(Offshorer)은 생산성은 빠르게 증가하나 국내 고용은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음.
 - 외부 환경 중 해외 노동비용 상승은 국내복귀를 유인하지만, 국내 최저임금 상승은 해외이전을 가속화시킴.
- 결과적으로, 다국적기업의 국내 복귀는 단기적으로 고용 등 긍정 효과를 주지만, 저생산성 기업 중심으로 이뤄지는 만큼 지속가능성은 낮아, 정책적 지원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.
 - 단순한 복귀 장려보다 생산성 제고와 기술 혁신을 유도하는 정책 설계 중요
 - 더 좋은 정책은 국내 투자 환경의 전반적인 개선을 통해 생산성이 높은 기업들이 국내와 해외 모두 투자를 확장하는 기업이 되도록 유도한 것